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50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 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10월 26일 수요일 (음 9월 26일) 제167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 288-9700



제36회 도민의날 기념식이 25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8개분야 전북인대상 수상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근로대상 김창중 한국농어촌공사 차장, 나눔대상 황의욱 약사, 효행대상 손미향 씨, 송하진 도지사, 농림수산대상 이정 정이수산영농어조합 대표, 학술논문분야대상 백성일 전북일보 상무이사, 체육대상 김대는 전북축구협회장, 문화예술대상 이동희 작가, 경제대상 김종학 참باد농조합 대표.

“낙후 전주역사, 관광명소 먹칠한다”

전주역사 개선 요구 목소리 점차 커져

정동영 의원 “승객 1인당 평균 사용면적 가장 좁아”
도내 정치권, 정부 부처 상대로 적극 설득해가기로
송하진 도지사·김승수 전주시장도 지원사격 나서

전주역사에 대한 개선요구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도내 정치권 등이 호남 대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자며 힘을 보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동영 의원은 25일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의회에서 “전주역은 KTX가 정착하는, 규모가 비슷한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선상역사가 아니다”라면서 또한 “승객 1인당 평균 사용면적이 가장 좁아 반드시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전북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5년 전주역 이용객수는 255만명으로, 2014년(233만명) 대비 21만명, 9%가 증가해 서울역을 제외한 전국 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도 이용승객 1인당 평균 사용면적은 0.23㎡로 전국 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북연구원이 정동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KTX 주요 정착역 일일평균 이용자 1인당 평균면적은 1.53(㎡/명)인데 반해 전주역은 평균 0.2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부선은 평균 2.16명, 경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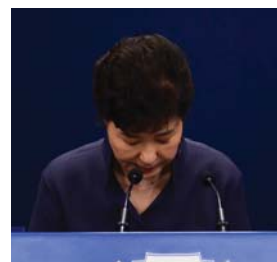
1.74명, 호남선 1.63명, 전라선은 1.18명이다. 전북도와 전주시, 지역국회의원 관계자들도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코레일 등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이들은 향후 공동으로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코레일 등을 상대로 전주역사 전면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 의원은 김광수 의원, 정운천 의원 등은 전북연구원으로부터 전주역사 개선을 위한 연구결과물을 제출받아 국토위에 제출한 바 있다. 행정기관도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올해 열린 각종 정책협의회와 국회방문, 정부부처 예산화보 활동 등을 통해 전주역사의 문화재급 전면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역설해 오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 역시 최근 박근혜 대

통령과 국무조정실장, 지역발전위원회, 행정자치부차관, 관련 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오찬 간담회에서 전주역 선상역사 건립 추진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전주역사 전면개선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전주역은 1981년도에 건립해 35년 된 건물로 대합실은 물론 주차장 등 제반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전주는 한옥마을 등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1,000만 명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최근 세계적인 여행 안내 지침서인 ‘보니 플래닛(Lonely Planet)’에서 1년 안에 꼭 가봐야 할 아시아 관광명소 3위로 전 세계에 소개(CNN)함으로써 전주역사를 이용하는 국내의 관광객은 더욱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설 개선을 외면함으로써 관광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최순실, 옛 인연으로 도움 이유여하 막론 송구스럽다”

연설문 사전입수 의혹에
박 대통령, 대국민사과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연설문을 사전입수했다는 의혹을 인정하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국민사과를 했다. <관련기사 3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제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아시아시퍼 선거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다”며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대국민사과를 위해 입장해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제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입수하고 일부 수정하기도 했다는 의혹을 일부 인정했다. /뉴스시스

“산림치유원사업도 영호남 차별”

김종회 의원 “서남권역, 동남권역에 비해 사업비 적어”

진안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역 지역 산림치유원사업이 동남권역 경북 영주의 백두대간 산림치유원사업에 비해 금액도 훨씬 적어 지방비 부담이 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은 25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동남권역 산림치유원 사업비 826억원이 전액 국비로 조성된 것과는 달리 서남권역에 축소된 사업비 485억원조차도 절반을 지자체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국토 균형발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면서 “이는 권역 간 차별적인 예산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동남권역 백두대간 산림치유원사업과 서남권역 지역권 산림치유원사업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과연 대통령공약사업이라고 말

할 수 있겠느냐”며 재차 물었다. 김 의원은 이미 지난 2013년 대통령령약사업으로 진안에 들어서기로 약속된 ‘서남권역 지역권 산림치유원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더욱이 김 의원은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240위인 진안군에 이같이 요구하는 것은 서남권역 산림치유원사업을 사실상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전통경관영역이 부족한 지자체에 운영을 맡기는 것은 산림치유원사업의 지역 간 불균형과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의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킴으로써 본 사업의 당초 취지인 국민행복증진을 도모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민형 기자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UNESCO Gochang Biosphere Reserve

자연의 위대함과 생명의 경이로움, 환경의 소중함을 알게 해 주는 여기는 고창생물권보전지역입니다.